



코스피	2070.73 (+8.40)	코스닥	645.12 (+0.84)
금리 (연고채 3년)	1.31 (-0.01)	환율 (원-달러)	1191.30 (+0.60) (18일)



[뉴스] 차기 수출입은행장에 전병조 급부상 02

잔심부름에 진학상담까지... '극한직업' 증권사 PB

집안 사정, 고민 등 공유 이사부터 자녀 숙제까지 VIP 고객의 '집사' 역할 주말 스케줄도 비워야

<증권사 PB출신 인터뷰>

A증권사 PB 경력 4년

"출근 첫날부터 VIP고객 이사 도와"

"좋은상품 추천 위해서 밤샘 공부"

B증권사 PB 경력 6년

"주말 스케줄은 VIP 고객 위해서"

"거의 가족과 같은 친밀감으로"

C증권사 PB 경력 10년

"골프 갑질, 모든 비용 내게 부담"

"믿어주는 고객이 힘"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무실 PC를 옮기는 과정에서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권사 PB 업무 영역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B는 거액 투자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금융 포트폴리오 전문가다. PB 서비스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다.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은 고객자산가와 PB와의 관계가 어디까지냐다.

일반적으로 한 증권사에 10억 원 정도를 맡기면 PB로부터 VIP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PB는 VIP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집사'가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메트로신문은 18일 증권사 PB 출신 3명을 인터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들은 각자 다른 증권사 출신. 4년차, 6년차, 10년차 증권맨을 만나 실제 PB 영업

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었다. ◆ "고객 자녀의 진학부터 결혼까지"

증권사 PB들은 VIP와의 친밀도는 '고객 이상'이라고 했다. 진짜 가족의 일원처럼 그들의 집안 사정, 미래 계획, 사적인 고민 등을 모두 공유하는 사이라고.

B증권 PB는 "VIP 고객을 처음 만날 때 하는 대화는 투자 상품 제안이 아니다. 고객의 가족 구성원, 집안 문제 등을 들어주는 일부터 한다. 고객의 모든 사

생활과 가치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은행 PB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 '끈끈함'이라는 것. 증권사 PB는 VIP 고객의 모든 집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해당 PB가 지점을 옮기면 고객도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증권사 PB는 "5년 넘게 PB 업무를 하다가 본사로 발령이 났을 때 VIP 고객 한 분이 수수료는 알아서 책정해도 좋으니 자산관리를 계속해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 그건 불법이고, 관리 시스템 접근 권한도 없기 때문에 절대 안된다고 설득했다. 지금도 다시 지점으로 돌아오면 본인 돈을 맡아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다.

증권사 PB들은 통상 VIP 고객의 '집사'라고 말한다. 집안 사정을 다 아는 만큼 그들의 사소한 부탁도 들어주고, 잔심부름을 한다. 이번 '조국 사태'에서 한 증권사 PB가 정경심 교수님 도와 PC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나라도 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

A증권사 PB는 "처음 영업직

을 시작하고 VIP 고객 한 분이 이사하는 걸 도와달라고 했다. 당황스러웠지만 주변 선배들께 물어보니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본인은 VIP 고객 자녀의 영어 숙제까지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 PB들의 주말은 VIP 고객을 위해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한다"고 했다.

B증권사 PB 역시 "강남에 유명한 PB분은 고객들 간 혼사를 맺어주면서 유명해진 걸로 알고 있다. 고객 자녀들의 진학상담을 위해 진학전문가도 연결시켜주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소개팅을 주선하기도 한다"고 했다.

고객의 '갑질'은 일상사라고 한다. C증권사 PB는 "어느날 고객분이 골프를 함께 치러가자고 해서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 골프피부터 모든 것을 나에게 내도록 했다"고 한탄했다.

실제 증권사의 PB의 취미, 스케줄은 모두 VIP 고객에게 맞춰진다. 증권사 PB 교육과정에도 인, 요트, 명품 등을 배우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VIP들과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4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 스마트물류 향한 한발 전진

메트로경제가 오는 9월 26일(목)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스마트물류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제4회 물류&모빌리티 포럼'을 개최합니다.

메트로경제는 지난 3회까지 물류산업에 초점을 맞춰 포럼을 진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물류산업과 모빌리티산업의 융·복합 추세에 주목해 포럼 주제를 '물류&모빌리티 포럼'으로 확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주요 산업에서 불고 있는 가운데 물류분야에서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물류집하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운송 효율화,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Last Mile Delivery)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한창입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물류&모빌리티 포럼에서 블록체인·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이 물류산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빌리티산업과 물류 산업의 융합 추세에 대한 국내외 최신 동향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두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와 정책 과제 등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물류산업을 바라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One more step Smart Logistics (스마트물류를 위한 한발 전진)
- 일 시 : 2019년 9월 26일(목) 13시 30분~17시
- 장 소 : 서울 중구 을지로5길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 등 록 : 메트로경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 (02)721-9826 또는 forum@metroseoul.co.kr



살처분 준비하는 방역 당국

18일 경기도 연천군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 연천도 뚫렸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경기북부 6개 시·군 집중방역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 잇달아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이미 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파주, 연천을 포함해 경기 북부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의 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

은 어미돼지 한마리가 폐사하자 전날 오후 2시에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이 농장은 돼지 4700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로써 전날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연이틀에 걸쳐 두 건이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연천군 발병 농장에서 긴급 살처분 등 방역을 진행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발생 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밖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대성 기자

2047년 '1인 가구'가 3분의 1

통계청, 장래가구 특별추계 독거노인, 2017년의 3배 ↑

국내 가구 수가 2041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전망이다.

1인 가구가 매년 9만 가구 이상 늘면서 2047년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의 3~4인 가구로 구성된 2017년 1957만 1000 가구에서 서서히 늘어나 2040년

면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지 12년 뒤에는 가구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2047년에는 혼자사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이 2017년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17년 1957만 1000 가구에서 서서히 늘어나 2040년

2265만 1000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045년 2245만 6000 가구로 떨어지던 2047년에는 2230만 3000 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 내뉘던 추계와 비교하면 가구 정점이 3년 앞당겨진 셈이다.

1인 가구는 2017년부터 30년 간 연평균 9만 1000 가구가 늘어

날 전망이다. 부부가구도 매년 5만 7000 가구가 증가하지만, 부부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구는 연 8만 4000 가구씩 감소한다.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1인 가구 구성비는 2037년 기준으로 한국이 35.7%로 호주(26.5%), 뉴질랜드(27.8%·2038년), 캐나다(30.2%·2036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은 39.0%로 한국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